

까만콩

이 민 (2012년 제8회 5·18문학상 수상작)

나는 까만콩이다. 어디에 굴러가도 모를 만큼 작다. 얹힌 데 덮힌 격으로 얼굴마저 콩자반처럼 까무잡잡하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날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뭘 먹고 이렇게 안 컸니?”

오늘도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들었다. 너무 화가 나서, 머리에 싹이 돋을 지경이다.

더 화가 나는 건, 내가 버려졌다는 거다. 우리 아빠로부터!

아빠가 재혼을 하면서 나를 외갓집에 맡겼으니,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외갓집엔 엄마도 없다. 엄마는 나를 낳다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오래니까. 그래서 나는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가끔 엄마에 대해 묻기라도 하면, 아빠는 버럭버럭 불뚝성부터 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빠 몰래, 이불 속에 숨어 불러보았다.

“엄마…….”

엄마에 대한 추억은 이것뿐이다. ‘엄마’ 라는 말은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생각만 해도 두 볼이 저절로 발개졌으니깐.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당당히 외쳤다.

“그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결국 나, 까만콩은 외갓집이 있는 시골에서 살게 되었다. 마을버스라도 얻어 타려면 한 시간은 족히 기다리는, 외삼촌 말대로라면 파리똥만한 마을에서.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파리똥만한 마을도 좋고, 틀니를 컵 속에 뱉어놓는 외할머니도 좋다. 머리를 박박 깎고, 경운기를 오토바이마냥 몰고 다니는 노총각 외삼촌도 좋다.

그런데 단 하나! 이모만큼은 싫다. 지나다닐 때마다 이모를 쪽 빼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건 더욱 더 싫다. 그래서 나는 이모를 볼 때마다 이렇게 묻고 싶어진다.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거냐고!

이모는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신는 신발을 싫어한다. 운동화건 구두건 신겨 놓으면 무조건 맨발이 된다. 돌이며 자갈, 심지어 깨진 항아리 조각에 찢려 발바닥에 피가 나도 맨발로 다닌다. 덕분에 외할머니는 신발을 들고 이모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는 며칠에 한 번씩 새 신발을 사야만 했다. 나는 졸라대도 안 사주는 새 신발을! 게다가 이모는 정말 빠르다.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건 아닐까, 의심할 만큼.

이모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날아다니기 바쁘다. 역시나 맨발로!

그래서 이모의 발톱은 거의 다 빠져버렸다. 저번 주에는 십 키로는 떨어진 이웃 마을에서 연락이 왔다. 이모가 엄마를 찾으려 울고 있다고.

외할머니는 안 되겠다며, 이모의 한쪽 손목을 끈으로 묶었다. 나머지 한쪽 끝은 외할머니의 허리에 칭칭 동여맸다. 어찌다 마을 앞 구멍가게에 가더라도 이모랑 같이 다녔다.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이모는 화를 내며 거위처럼 꺾꺾 소리를 질렀다. 온 마을이 떠나가도록!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모가 날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나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이모는 침이 흐르는 입술을 내 얼굴에 갖다 댔다. 도장이라도 찍겠다는 듯, 쪽쪽거리는 통에 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으악!” 내 비명 소리에 놀란 이모는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몸을 웅크리더니, 두 손을 짹짹 비비며 빌었다.

“군인아저씨, 제발 때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이모는 날 보며 뒷걸음질 쳤다.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며 짹짹 빌었다. 나는 엉엉 울고 싶었지만, 꺾 참았다. 까만콩은 눈물을 잘 참는다. 숨을 십 초만 안 쉬어도 눈물이 쪽 들어가니까. 이런 이모가 함께 산다는 걸 알았다면, 아예 오겠다고 하지도 않았을 거다.

내 특기는 공부할 때 ‘두 눈에 불 켜기’ 다. 수업 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칠판만 보이는 희귀한 시력을 가졌다. 이 학교로 전학 온지 정확히 일주일 쯤 되던 날이었다. 그 날만큼은 눈앞에 선생님 대신 이모가 보였다. 아무리 눈을 비벼대도 이모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모는 험크처럼 나를 향해 뛰어왔다.

“숨어! 민주야, 숨어!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돼! 총 맞아, 다 죽어!”

이모는 내 목덜미를 잡고 책상 밑으로 끄집어 내렸다.

나는 그 날 처음으로 알았다. 이모는 힘까지 험크를 닮았다는 사실을! 친구들까지 모조리 책상 밑으로 밀어 넣었으니까. 수위 아저씨가 출동하지 않았다면, 선생님마저 책상 밑에 웅크려야 했을 거다.

이모는 그렇게 내 친구들도 빼앗아 갔다. 공부를 잘 한다고, 피아노를 잘 친다고 나를 좋아하던 친구들은 한 순간 짹, 사라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이렇게 묻기 바빴다.

“너희 이모 미쳤지?”

나는 학교에서 더 이상 똥똥이 까만콩이 아니다. 외톨이 까만콩이 됐다. 전교생 일곱 명 중에 외톨이 한 명은 맘 편히 숨을 곳도 없다. 등에 큼직한 이름표를 달고 사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름표에는 언제나 ‘외톨이’ 라고 적혀 있다.

“이모랑 같이 살아야 돼요?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외할머니도 이모 때문에 못 살겠다면서요. 외삼촌은 이모 때문에 술만 먹잖아요! 나도 이모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소리치자, 이모는 바닥의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다. 외할머니는 휴우, 한숨을 내쉬더니 이모의 어깨를 철썩철썩 때렸다.

“그러게, 학교에 왜 갔어! 연화야, 왜 그랬니. 왜! 잠깐 졸았더니 고새를 못 참고. 에그.”

“민주, 너! 이모한테 그러면 못쓴다. 넌 그러면 안 돼!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혼쭐 날 줄 알아라.”
 외삼촌은 버럭 화를 내더니,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쿵, 소리를 냈다.
 외삼촌이 나한테 화를 내다니! 몰래 지갑에서 만 원짜리를 꺼내갔을 때도, 외삼촌은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머리에 꿀밤을 때리며 미안해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조카한테 용돈도 안주고. 민주야, 앞으로는 아빠라고 맘 편히 생각해. 외삼촌이 깜박해도 꼭 용돈 달라고 해. 약속!”
 외삼촌은 언제나 내 편이었다. 오늘처럼 날 쏘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울컥, 서러운 마음이 치솟았다. 나는 일부러 외삼촌 앞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가 받으면 큰 소리로 물을 썸이었다.
 ‘아빠! 언제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아빠의 핸드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다.

큰 일 났다! 이모가 사라졌다!
 집에 오자마자, 외할머니가 평평 울며 말했다. 외삼촌도 옆집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시내까지 나갔다가 되돌아왔다. 경찰 아저씨는 한 마디 말로, 외할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실종’ 이라고. 경찰 아저씨는 이모의 인상착의를 수첩에 적었다.

*

**‘이름 : 오연화. 긴 단발머리. 코 옆에 점. 정신 장애.
 얼굴은 검은 편. 키가 작고 이목구비는 또렷함.
 나이: 44세.
 실종 당시 옷차림 : 흰색 반팔, 꽃무늬 고무줄 치마. 맨발.’**

경찰 아저씨는 무전기로 다른 경찰들에게 이모의 모습을 전했다. 나는 경찰 아저씨에게 더 말해줄까, 하다가 그만 두었다.

‘뚜렷한 이목구비’ 대신 ‘늘 침을 흘리고, 턱받이 수건을 하고 있음’ 이라고 고쳐야 한다. ‘사탕만 주면 달려옴’, 혹은 ‘헐크처럼 힘이 썸’ 등의 특징이 다 빠졌다.
 하지만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경찰 아저씨랑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그 길로 화장실로 달려가 숨어 버렸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이모를 찾지 못했다. 외삼촌은 이모의 사진이 커다랗게 실린 전단지를 시내에서 천 장이나 만들어 왔다.

전단지에는 화장을 한 젊은 이모가 담겨 있었다. 지금처럼 긴 단발머리에 얼굴도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 이모는 늘 슬퍼 보여야 한다. 이모를 생각하면 겁에 질린 눈동자가 먼저 떠오를 만큼.
 그런데 전단지 속의 이모는 활짝 웃고 있었다. 둥근 눈웃음이 나랑 비슷해 보였다.
 이 전단지로 이모를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내 눈에는 활짝 핀 꽃과 시든 꽃처럼 전혀 다른 사람 같아 보였다.
 “그 긴 세월동안 사진 한 장 찍어놓은 게 없으니, 휴.”

외삼촌은 눈을 감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외할머니는 전단지 속의 이모 얼굴을 백 번, 아니 천 번쯤 쓸어내렸다.
 “이렇게 고왔는데. 우리 연화가, 이렇게 고왔는데…… 대체 어딜 간 게야!”
 외할머니는 전단지를 이모라도 되는 양 껴안고 흐느꼈다. 나는 외삼촌과 함께 경운기를 타고 시내로 나왔다. 외삼촌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며, 전단지 한 뭉치를 안겨주었다. 나는 행여나 친구들이 볼까봐 고개를 꼭 숙였다.
 “한 번 보시고, 꼭 연락주세요. 사례하겠습니다.”

외삼촌은 허리를 굽히며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나는 외삼촌 앞에서 전단지만 만지작거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거나, 전단지를 받자마자 내팽개쳤다. 이모 얼굴이 구겨져서 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는 말 그대로, 화가 폭발할 것 같았다. 구겨진 전단지 때문이 아니다. 빗방울이 섞인 바람 때문에 콧물이 줄줄 흘렀기 때문이다. 이 날씨에 내가 전단지까지 돌려야 하다니!

감기라도 걸리면 나만 손해다. 외할머니는 병원에 보내주는 대신, 지독하게 매운 생강차를 끓여줄 게 뻔했다. 파뿌리가 동동 떠 있는 생강차 말이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그 때 머릿속에서 반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외삼촌! 저는 저 끝에서 돌릴게요.”

내가 가리킨 곳은 반대 방향이었다. 외삼촌은 내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네. 우리 민주가 대견하구나. 암, 그래야지.”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전단지를 끌어안고,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다. 외삼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전단지를 나눠주는 척 길에다 몇 장씩 뿌리며 걸어갔다. 그래도 전단지는 줄어들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봐도 쓰레기통은 보이지 않았다.

중국집 오토바이에 실린 커다란 양동이가 보였다. 다 먹고 난 그릇을 싣고 오는 통 같았다. 나는 그 속에 전단지 뭉치를 집어넣었다. 남들은 까치발로 점프까지 하는 내 모습을 보고, 농구라도 하는 줄 알았을 거다. 오랜만에 속이 다 후련했다. 이왕 시내에 나온 김에, 게임이나 한 판 할 생각이었다. 나는 피시방으로 뛰어갔다.

몇 시간이나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다. 거리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외삼촌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주머니에 외삼촌이 준 용돈이 두둑하게 들어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간신히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올 수 있었다.

외삼촌은 마당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입술을 짹 깨문 모습으로.

“민주,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외삼촌의 목소리는 어두운 마당에 찌렁찌렁 울렸다. 개들이 킁킁 짖었다. 마당의 닭들이 푸드득, 날아올랐다. 내가 막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할 때였다. 외삼촌은 고추기름이며 자장이 잔뜩 묻은 전단지 뭉치를 내 앞에 던졌다.

“이럴 거면 아빠한테나 가!”

나는 순간 두 귀가 먹먹해졌다. 깊은 물에 빠졌을 때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꼭 참은 눈물이 목 뒤로 넘어갔다. 눈물은 한약처럼 쓴 맛이 났다.

“내가 무슨 택배 상자예요? 어른들 맘대로 보냈다, 받았다 하냐고요!”

나는 따따부따 외쳤다. 외삼촌은 내 말을 듣기 싫다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넌 그러면 안 돼! 저, 께썸한 녀석.”

외삼촌은 전단지를 다 닦을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다. 나는 발끝으로 더럽혀진 전단지를 멀쩡이 밀어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조카라고 다 참아야 돼? 이모가 미워. 이모가 다시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찬 바닥에 엎드렸다. 몸을 잔뜩 웅크렸다. 이럴 때 엄마가 있었다면, 날 안아줬을 텐데. ‘민주야, 기운 내. 괜찮아.’ 라고 위로해주면서.

며칠 뒤, 전단지를 본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차역에서 이모를 봤다는 사람이 둘 이나 있었다.

“기차역? 아니 거길 왜…….”

“어머니, 혹시 거기 아닐까요? 연화가 갈 만 한 곳은.”

외삼촌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외할머니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더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애야, 가자! 연화가 기다리잖니. 빨리 옷 입어라.”

외삼촌은 바로 택시를 불렀고, 우리는 모두 함께 집을 나섰다. 외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었다. 외삼촌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었다. 아무 말도 없이.

“외삼촌, 어디 가요? 이모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가요?”

“가보면 안다. 민주야.”

외삼촌은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외삼촌의 손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기차에 타자마자, 나는 멀미를 했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난 걸까.

“민주야, 일어나라. 광주에 다 왔다.”

외할머니가 나를 깨우며 말했다.

거짓말처럼, 그 곳에 이모가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속에서 잿빛 누더기가 된 옷을 걸친 이모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맨발의 이모는 짚더미처럼 그곳에 앉아 있었다. 중앙로 거리는 몰려다니는 사람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이모가 투명한 벽이라도 되는 듯, 피해서 빙 돌아나갔다.

“연화야!”

외삼촌이 달려가서 이모를 껴안았다. 외할머니는 이모를 향해 달려가다가 자꾸만 넘어졌다. 나는 옆에서 외할머니를 부축하느라 진땀이 흘렀다.

이모에게서 지독한 냄새가 풍겼다. 나도 모르게 코를 움켜쥔 때였다. 이모는 외할머니를 보더니, 똑같은 말을 횡설수설 늘어놓았다.

“명자 언니랑 두부 사러 나왔는데…… 총! 총이다! 군인 아저씨, 난 잘못 없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으앙!”

이모가 도로 한 가운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우리를 쳐다보았다.

“엄마, 명자 언니 여기서 죽었다! 저기! 총 맞아 쓰러졌잖아! 나, 대신 빵! 가슴에 맞고 죽었어!”

이모는 외할머니의 품에 안겨 부들부들 떨었다. 외할머니는 괜찮다며 이모를 다독였다. 외삼촌은 이모를 들춰 업었다. 이모가 등 뒤에 업혀서 훌쩍거렸다.

“오빠! 빨리 집에 가. 문 잠그고 꼭꼭 숨어.”

“그래, 연화야. 그래.” 외삼촌은 아이를 어르듯 이모를 업어대며 걸어갔다. 가는 길에 햇불이 장식된 둥근 조각이 세워져 있었다. 조각 앞에서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철판 위에 글씨들이 빼곡 새겨져 있었다.

‘5.18 사적지’

나는 비문을 한 글자씩 따라 읽었다.

‘이 곳은 5.18 민주 항쟁 때, 계엄군¹⁾이 비무장²⁾ 시민을 향해 최초로 발포했던 곳이다…….’

나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모가 아프게 된 이유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내에 있는 작은 여관에서 잠을 잤다. 이모는 자면서 큰 소리로 코를 골았다. 외할머니는 이모의 손목에 끈을 묶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외삼촌이 자꾸만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야, 자니?”

“잠이 안 와요. 저, 외삼촌! 이모는 언제부터 저렇게 아팠어요?”

“저렇게 심해진 건 벌써 십 년이 넘었지. 민주야. 우리, 그동안 너무 떨어져 살았지? 꼭 이산가족처럼.”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내 말에 외삼촌은 후후, 웃었다. 외삼촌은 드문드문 말을 이어갔다.

“사실 민주가 와서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지 뭐냐. 민주가 모든 걸 알고 온 걸까, 아니면 아직도 민주에게는 다 비밀인 걸까, 싶어서.”

‘나에게만 비밀이라니?’ 뜬금없는 소리에 놀라 외삼촌을 바라보았다. 외삼촌은 스탠드를 켜다. 어슴푸레한 빛 아래, 외삼촌의 까칠한 얼굴이 드러났다.

“이 모든 일은 이십 년 전, 이 곳 광주에서 시작됐다.”

외삼촌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민주야, 언젠가는 전부 다 말해주려고 했어. 그 날이 바로 오늘인가 보구나.”

외삼촌은 꼭 다문 입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외삼촌의 깍지 낀 손이 자꾸만 떨렸다.

1) 계엄군 :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군대.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을, 폭력 진압의 도구로 사용하여 수많은 시민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2) 비무장 : 아무런 무기를 갖추지 않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말이다. 군인들이 몰려왔구나. 권력에 눈이 먼 군인들이 제멋대로 나라를 잡고 흔들 때였지.”

외삼촌은 목이 메는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내 친구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외쳤다. ‘독재³⁾는 물러가라! 민주주의⁴⁾, 만세!’ 나는 그 때 열일곱. 광주일고에 다니는 까까머리 일학년 학생일 뿐이었어.”

나도 모르게 팔뚝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외삼촌의 눈시울은 금세 붉어졌다.

“발포! 누군가의 한 마디에 총질은 시작됐지. 자유를 외치는 대학생들을 향해! 그건 잔인한 사냥이었어. 모조리 죽이기 위한 사냥!”

외삼촌은 주먹으로 눈시울을 훔쳤다.

“시민들이 말리자, 사냥꾼들은 무작정 쏘아댔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머리 위에, 아기를 안은 엄마의 등 뒤에, 학생들의 가슴 위에 총구를 겨누고 쏘았지. 내 어깨에도 그 날의 상처가 있구나.”

외삼촌은 옷을 걷어 어깨를 불빛에 비췄다. 밤톨만큼 움푹 파인 상처가 드러났다.

“이 상처도, 그 날의 기억들도 영원히 남아 있을 거다.”

“외삼촌, 이모도 그 때 다친 거 맞죠?”

“그랬지. 옆집 새댁을 따라서 두부 사러 간다고 나갔다가, 총을 든 계엄군과 마주친 거야. 그 어린 게 말이다.”

외삼촌은 잠든 이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모가 이불을 차냈다. 외삼촌은 이불을 여며주며 말했다.

“민주야, 이모가 창피하겠지만…… 네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그래서 아프다고 한 번만 생각해 주겠니.”

“외삼촌…….”

“내 동생은 겁에 질려 있었어. 옆집 새댁이 자기 대신 총에 맞았다며, 벌벌 떨었지. 그 후로 몇 년 동안 늘 옷장 속에 숨어 살았어. 우리는 건디다 못해, 광주를 떠났지.”

“우리 엄마는요? 그 때 몇 살이었어요?”

외삼촌은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았다.

“외삼촌! 왜 다들 내가 엄마 이야기만 꺼내면 싫어해요? 네?”

“그래, 민주야. 잘 들어라. 이제부터 네 엄마 이야기를 해주마.”

외삼촌의 눈시울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처음으로 듣는 엄마의 이야기를 한 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내 동생은 오랫동안 힘들어 했다.”

외삼촌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혔다.

“외삼촌 동생이라면, 우리 엄마요? 아니면 이모 말이에요?”

외삼촌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외삼촌이 왜 뜸을 들이며 말하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빨리 엄마의 이야기를 해주기만을 바랐다.

“연화도…… 남들처럼 결혼을 했지. 그 때까지 우리는 병이 곧 낫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결혼하고 첫 해 만에 예쁜 아이를 낳았어.” “이모가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고요?”

나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물었다. 외삼촌은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작은 아이였다. 엄마가 아파서 세상에 일찍 나온 아이. 엄마를 닮아 유달리 얼굴이 까맣던 아이.”

외삼촌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불안한 마음이 먹구름처럼 밀려왔다.

3) 독재 : 한 개인이나 집단이 모든 권력을 쥐고 나라를 지배하는 강제적인 정치.

4) 민주주의 :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국민이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그러니까요. 이모 이야기 말고요, 우리 엄마 이야기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방 안은 전기 흐르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아이는 연화를 닮아서 작고 귀여웠어. 사람들에게 까만콩이라고 불릴 만큼.”

“외삼촌!”

나는 낮게 소리쳤다. 외삼촌은 더 빠르게 말을 이어갔다.

“연화는 건강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 아이도 못 알아볼 만큼 말이야. 우리는 간절히 빌었다. 너 만큼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자라는 걸 바라지 않았어. 네 아빠도 그러길 원했지.”

“비겁해요. 겁쟁이! 내가 볼 땐 우리 가족 모두 다 겁쟁이에요!”

나는 가까스로 눈물을 참았다. 외삼촌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외삼촌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내 눈물이 외삼촌의 상처 속으로 스며들 때까지.

“네 엄마다, 민주야. 단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외삼촌은 이모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말했다. 이모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냥 이모일 뿐이에요.”

“휴, 그 시절은 아직도 잔인하구나. 누구보다도 너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줬으니.”

외삼촌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찾던 엄마가 우리 이모였다니! 외삼촌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주야, 편안한 요양소가 있다고 해서, 알아봐 줬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너도, 네 엄마도 말이야.”

나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외삼촌은 따라 나오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외삼촌이 날 붙잡았다면, 아마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을 테니까.

내일은 엄마가 병원의 요양소로 떠나는 날이다. 외할머니는 그 전에, 우리가 꼭 한 번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광주의 망월동에 있는 ‘5.18 국립 민주묘지’에 도착했다. 외삼촌은 그 당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고 알려주었다. 손에 사탕 봉지를 든 이모가 비석 사이를 짱충짱충 뛰어다녔다. 줄지어 서 있는 까만 비석들 사이로, 화병마다 흰 국화꽃이 꽃혀 있었다. 외삼촌의 얼굴은 자라난 수염으로 덩수룩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아프고 힘들까요?”

나는 외삼촌 옆으로 다가가 물었다. 외삼촌은 먼 곳을 쳐다보며 말했다.

“누구 말이나?”

“군인들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यो.”

“그 사람⁶⁾…… 아, 그래. 그 사람은 지금도 잘 살고 있구나.”

외삼촌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사람이 미워요! 이모 앞에서, 우리 가족 앞에서 빌었으면 좋겠어요. 잘못했다고!”

외삼촌은 대답 대신 쓸쓸하게 웃었다.

“후후, 그래. 모두가 그렇게 원할 거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외삼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몇몇 비석 앞에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눈물을 닦은 손수건으로 비석을 닦았다. 상처 입은 얼굴을 닦아내듯이.

6) 전두환을 지칭. 전두환: 1979년 당시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전 12대 대통령.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사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라고 부르며, 폭력 진압할 것을 명령함.

외할머니가 서 있는 비석 앞으로 갔다. ‘김명자의 묘’ 라고 적힌 비석 옆에 면사포를 쓴 여자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나는 비석의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다.

‘여보, 우리 아기와 함께 천국에서 편히 쉬어요. 곧 만납시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외할머니는 새로 사온 곰 인형과 장난감 자동차, 한 꾸러미의 과자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새댁! 우리 왔어. 이 아이가 연화 딸이야. 꼭 한 번, 인사라도 시켜주고 싶었어. 저기, 자네가 지켜준 연화도 왔지 않나.”

외할머니는 사진의 뿌연 먼지를 닦아내며 말했다. 나는 국화꽃 한 송이를 사진 옆에 내려놓았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이모가 한쪽 발을 들고, 깨금발로 쿵쿵 뛰어왔다.

천구백팔십년 오월, 전라도 광주에 총소리가 울리기 전.

나처럼 작고 까만 열두 살의 모습으로.

“엄마!”

나는 엄마의 손목을 잡았다.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옷소매로 끈적이는 엄마의 입가를 닦아냈다. 엄마는 둥근 눈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가지 마.”

나는 다시 한 번 천천히 말했다.

“병원에 가지 마.”

이제야 엄마를 찾았잖아. 엄마를 숨어서 부르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도 행복해 져야지, 응? 엄마…….